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에 따른 행동문제*

Institutionalize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Depending on Their Cognitive Abilitie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 사 이 강 이
박사과정 성 미 영
교 수 이 순 형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Kang Yi Lee
Doctorial Course : Mi Young Sung
Professor : Soon Hyung Yi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institutionalize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depending on their cognitive abilities. Subjects were 185 institutionalized children in 15 child-welfare facilities in Seoul (132 preschooler and 153 primary schoolers; 106 boys and 79 girls). Institutionalized children's cognitive abilities were measured using the Comprehension and Picture Completion Assessment, two subsets of K-WPPSI (Park et al., 1996). Comprehension and Picture Completion Assessment belong to verbal and performance scale, respectively. Measures of behavior problems included anxiety, immaturity, social withdrawal, physical symptom, hyperactivity, and aggression. Data were analyzed with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Results showed that institutionalized children had higher scores in Picture Completion Assessment than Comprehension Assessment. Furthermore, institutionalized children with low scores in Comprehension Assessment were higher in anxiety and social withdrawal than children with high scores in Comprehension Assessment.

주제어(Key Words):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시설보호 아동 (institutionalized children)

* 이 논문은 1999년도 두뇌한국21 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I. 문제의 제기

시설보호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 성취 및 이에 따른 성공적인 사회 적응은 사회정책 및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 해체로 인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나이 어린 아동이 증가하면서, 시설보호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시설보호 아동의 낮은 학교적응 수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직후부터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며, 그 중에서도 또래 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서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성미영·이순형·이강이, 2001)는 시설보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노봉련, 1997; 박영준, 1996; 신소희, 1984; 이종원, 1988)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낮은 학업성취와 높은 수준의 학교중퇴, 비행률 등 결핍 환경의 결과적인 측면에 주로 중점을 두고 접근함으로써, 시설보호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의 근원과 그 해결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웠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취학전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초기 아동기는 인생에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Egeland, Kalkoske, Gottesman, & Erickson, 1990)로,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행동문제가 있다. 하지만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로는 부모의 생존 유무라든가 동거 형제의 유무와 같은 가족지원망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순형·이강이·성미영, 2001)가 있을 뿐이어서,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나이 어린 아동의 사회적인 행동은 인지적인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황혜신·황혜정, 2001)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와 인지능력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의 인지능력과 사회적 발달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능과 같은 인지적 요인은 비행 또는 반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아동기의 공격성은 성인기의 지적 능력이 기능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되며(Eron, Huesmann, Dubow, Romanoff, & Yarnel, 1987), 일반지능과 아동기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Anderson, Williams, McGee, & Silva, 1989; Cook, Greenberg, & Kusche, 1994)에 의하면 지능과 문제행동의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행동문제와 인지능력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발달 실태와 관련 요인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 수준에 따라 행동문제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행동문제의 수준을 낮추는 시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발달상의 초기 결핍이 이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의 여러 연구를 통해 규명된 바 있으므로, 시설보호 아동 중 나이가 어린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이는 인지능력의 발달 실태를 알아보고 인지능력의 발달 수준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시설보호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그 결과는 시설보호 아동을 위한 인지 및 사회적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지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K-WPPSI(1996)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 적응과 관련하

여 이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 높은 수준의 학교 중퇴율 및 비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시설보호 아동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매개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공적인 학업 성취의 결정적인 중재 요인으로 인지적 능력(Ramey & Campbell, 1991)이 강조되고 있으며,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발달 양상에 관한 선행 연구들(Bassuk & Rosenberg, 1988; Morrison & Elwood, 2000)에서는 이 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지 발달 지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시설보호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지능력 실태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인지능력 실태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의 인지능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두 영역인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으로 구성된 K-WPPSI를 이용하여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K-WPPSI와 같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할 경우 맥락을 통제하여 구조화된 방식으로 발달 양상을 측정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 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 실태를 다각도로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성별과 취학여부 및 입소기간에 따른 인지능력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시설보호 아동이 보이는 학업성취상의 지체는 어릴 때 시설에 수용될수록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갑수, 2000). Frank와 동료들(1996)은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 중 특히 발달 지체가 두드러지는 언어 능력은 단기간의 시설경험만으로도 일어나며, 시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언어 발달 지체의 파급 효과가 읽기 능력 및 학업 성취의 지체로 이어져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입소기간이 이들의 인지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국내에서 실증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

이상에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시설보호 아동이 보이는 인지능력의 전반적인 양상은 어떠한가, 아동의 성별, 취학여부 및 입소기간에 따른 인지능력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사가 지각한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의 인지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인지능력과 행동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5개 시설에 입소 중인 시설보호 아동 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근 들어 나이 어린 아동의 시설입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을 초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인 K-WPPSI(1996)의 적용 대상이 만 3세에서 만 7세 3개월의 아동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을 만 3~7세의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중 미취학 아동은 132명(71.4%), 1학년은 53명(28.6%)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아 106명(57.3%), 여아 79명(42.7%)이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만 3세 10명(5.4%), 만 4세 29명(16.2%), 만 5세 37명(19.5%), 만 6세 53명(28.6%), 그리고 만 7세 56명(30.3%)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 시설 입소기간은 2년 4개월이었으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의 아동(110명, 59.5%)이 IMF 지원이 시작된 후인 '98년 이후에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의 입소기간을 2년 이상과 2년 미만으로 구분할 경우,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아동은 '92년에서 '97

년 사이에 시설에 입소하였으며, 2년 미만인 아동은 '98년과 '99년에 시설에 입소하였다.

2. 연구도구의 구성

1) 인지능력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K-WPPSI 검사 중 '이해' 소검사 및 '빠진곳 찾기' 소검사를 사용하였다. K-WPPSI 검사(박혜원·곽금주·박광배, 1996)는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Revised(1967)를 한국판으로 개발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친 인지능력 검사도구이다. K-WPPSI를 통해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생활연령이나 학년이 동일한 아동들의 점수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아동의 수행을 표준화 집단의 동일 연령대의 다른 아동의 수행에 비추어서 비교, 평가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특별한 비교집단 없이도 한 아동의 수행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K-WPPSI 검사는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언어성 검사 중 '이해' 소검사와 동작성 검사 중 '빠진곳 찾기' 소검사를 연구대상 아동에게 수행하였다. 여러 가지의 소검사 중 '이해' 및 '빠진곳 찾기' 소검사를 선정 한 이유는, '이해' 소검사의 경우 아동이 사회적 상황을 잘 이해하여 문제해결방안을 찾고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자기의 과거 경험을 평가, 종합하여 실제 상황에 응용하는 능력을 측정한다(윤여홍, 2000)는 점에서 시설보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언어적 능력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일상적인 물건의 그림에서 빠진 부분을 찾아내는 '빠진곳 찾기' 소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성 지능을 반영한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언어성 지능을 측정하는 '이해' 소검사는 행동의 원인과 사건의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두로 표현해야 하는 검사로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질문에 대한 반응 수준에 따라 2점, 1점, 0점으로 채점하였다(점수 분포: 0점-30점). 다음으로 동작성 지능을 측정하는 '빠진곳 찾기' 소검

사는 일상적인 물건 그림에서 빠진 부분을 찾아내는 검사로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성공한 경우에는 1점, 실패한 경우에는 0점으로 채점하였다(점수 분포: 0점-28점).

'이해' 소검사 및 '빠진곳 찾기' 소검사의 점수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원점수를 산출한 뒤, 6개월 단위로 설정된 규준을 통해 환산점수를 구하였다. 환산점수는 평균 10, 표준편차 ± 3 의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환산점수 10점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아동의 인지능력 수준을 각각 높은 집단(10점 이상)과 낮은 집단(10점 미만)으로 범주화하였다.

2) 행동문제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의 타당도를 검증한 한미현·유안진(1995, 1996)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담당보육사의 평가에 의해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였다. 한미현·유안진(1996)의 척도는 불안행동,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비행, 공격행동, 위축행동, 사고문제, 신체증상, 성문제의 9개 요인으로 구성된 Achenbach(1991)의 척도 중 한국아동이 주로 보이는 행동문제인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의 5개 영역만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포함한 만 3세에서 만 7세의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행동문제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체증상 영역을 척도에 포함시켰다. 또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된 문항의 내용 중 일부를 시설보호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불안행동, 미성숙행동, 위축행동, 신체증상,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의 6개 영역으로 아동행동문제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문제 척도의 전체 문항수는 총 36문항(점수 분포: 36점-144점)으로, 하위영역별로 각각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하위영역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불안행동으로는 '걱정이 많고

무서움을 탄다', 미성숙행동으로는 '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위축행동으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신체증상으로는 '피곤해한다', 과잉행동으로는 '차분히 앉아 있지 못하고 부산하다', 공격행동으로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친다' 와 같은 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1점(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행동문제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박사과정 이상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3인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행동문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4로 나타났으며, 불안, 미성숙, 위축, 신체증상, 과잉 및 공격행동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0, .78, .82, .65, .82, .88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15개 보육원의 만 3세에서 7세 아동 18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지능력과 행동문제 수준을 측정하였다. 먼저 아동의 인지능력은 개별 아동을 대상으로 K-WPPSI 검사 중 '이해' 소검사와 '빠진곳 찾기' 소검사를 실시하여 측정하였으며, 평균 검사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조사대상 아동의 행동문제는 보육사가 작성한 아동행동평가 질문지(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은 K-WPPSI 검사에 대한 사전 훈련을 받은 아동학 전공의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검사자가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조사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2가지의 소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행동문제의 경우에는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처리 되었으며, 통계방법으로는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이 사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 양상

시설보호 아동의 지능 검사 점수를 살펴본 결과, '이해' 능력의 평균 점수는 8.14점, '빠진곳 찾기' 능력의 평균 점수는 10.28점으로 나타나서,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이해' 능력의 점수보다 '빠진곳 찾기' 능력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즉, 시설보호 아동은 동일 연령대에 속하는 표준화 집단의 다른 아동의 수행과 비교할 때 '빠진곳 찾기' 능력의 경우에는 환산점수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이해' 능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시설보호 아동의 지능 검사 점수가 성별, 취학여부 및 입소기간(2년 미만/2년 이상)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이해' 능력의 경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취학 아동이 미취학 아동보다,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아동이 2년 미만인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빠진곳 찾기' 능력의 경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취학 아동이 미취학 아동보다, 입소 기간이 2년 미만인 아동이 2년 이상인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2.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에 따른 행동문제

시설보호 아동의 지능 검사 점수에 따른 행동문제

〈표 1〉 시설보호 아동의 지능 검사 점수

구 분		인지능력(N=185)	
		'이해' 능력 M(SD)	'빠진곳 찾기' 능력 M(SD)
성별	남아(n=106)	8.17(2.83)	10.31(4.43)
	여아(n=79)	8.09(3.22)	10.23(4.10)
취학 여부	미취학(n=132)	7.76(2.89)	9.92(4.23)
	취학(n=53)	9.08(3.05)	11.15(4.32)
입소 기간	2년미만(n=118)	7.96(2.90)	10.68(4.29)
	2년이상(n=67)	8.45(3.14)	9.59(4.20)
전체(N=185)		8.14(2.99)	10.28(4.28)

의 차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환산점수 10점을 기준으로 각각 '이해' 점수 또는 '빠진곳 찾기'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두 집단 간의 행동문제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설보호 아동은 '빠진곳 찾기' 능력 수준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표 2〉참고), '이해' 능력 수준에 따라서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 중 불안 행동($t=-2.27, p<.05$)과 위축 행동($t=-2.70,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참고). 즉, 시설보호 아동 중 '이해' 능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더 불안한 행동을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인지능력 중에서도 '이해' 능력의 차이가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에 차이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표 2〉 '빠진곳 찾기' 점수에 따른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

행동문제 하위영역	'빠진곳 찾기' 점수(N=185)	
	높은 집단(n=99) M(SD)	낮은 집단(n=86) M(SD)
불안 행동	10.82(3.71)	11.64(3.73)
미성숙 행동	12.01(3.88)	12.93(4.31)
위축 행동	9.68(3.37)	10.07(3.46)
신체 증상	9.10(2.74)	9.84(3.12)
과잉 행동	11.56(4.11)	12.73(4.32)
공격 행동	10.67(3.83)	11.22(4.11)
전체	63.83(18.14)	68.43(18.23)

〈표 3〉 '이해' 점수에 따른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

행동문제 하위영역	'이해' 점수(n=185)		t
	높은 집단(n=55) M(SD)	낮은 집단(n=130) M(SD)	
불안 행동	10.25(3.50)	11.60(3.77)	-2.27*
미성숙 행동	11.62(4.00)	12.78(4.12)	-1.78
위축 행동	8.84(2.80)	10.29(3.55)	-2.70**
신체 증상	9.65(2.93)	9.35(2.95)	.64
과잉 행동	12.20(4.33)	12.06(4.22)	.20
공격 행동	10.84(4.20)	10.96(3.88)	-.20
전체	63.40(17.47)	67.05(18.57)	-1.24

* $p<.05$ ** $p<.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시설보호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들의 인지능력을 살펴보고 인지 능력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시설보호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초기 아동기에 속하는 만 3~7세의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K-WPSSI의 일부 소검사를 실시하고 담당 보육사를 대상으로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시설보호 아동이 수행한 지능 검사의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빠진곳 찾기' 능력에서는 일반아동의 표준 점수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해' 능력에서는 표준 점수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은 '빠진곳 찾기' 능력에 비해 '이해' 능력에서 낮은 수행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 중 '이해' 능력을 포함한 언어성 영역이 '빠진곳 찾기' 능력을 포함한 동작성 지능과 비교하거나 또는 동일 연령대 표준 집단의 인지능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사건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개념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Phillips & Hartigan, 1984, Molnar et al, 1990에서 재인용)와 일맥상통한다.

Wechsler의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아동의 동작성 지능과 언어성 지능의 점수 차이는 문화적 경험과 교육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한다(박혜원 외, 1996). 즉, 여러 가지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작성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높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육적 혜택을 잘 받은 대상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외에 전문직 종사자의 자녀들은 언어성 지능이 높고 단순노동직 종사자의 자녀들은 언어성 지능이 낮아서(윤여홍, 2000), 사회경제적 요인이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도 있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 아동이 동작성 지능의 하위 소검사인 ‘빠진곳 찾기’ 능력보다 언어성 지능의 하위 소검사인 ‘이해’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결과도 위와 같이 교육 및 문화적 경험의 부족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 아동간에는 문화적 또는 교육적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부모의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는 어린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족해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린 아동이 부모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경험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이들의 인지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개별 양육이 가능한 일반 가정의 아동과 비교해서 집단 생활을 하는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시설보호 아동의 낮은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사전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비교 접근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을 대별하는 소검사 중 각각 한가지씩만을 실시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은 성별이나 입소 기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취학여부에 따라서는 취학 아동이 미취학 아동에 비해 ‘이해’ 능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K-WPPSI를 사용한 인지능력 검사의 성차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존재해서 K-WPPSI의 표준화 연구 결과(박광배, 2000)에서는 일부 소검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IQ지수의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K-WPPSI 검사 중 ‘이해’ 능력 검사를 실시한 최나야(2001)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이해력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지능력 발달의 성차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령 분포 및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상에게 실시한 검사 결과의 축적이 좀 더

요구된다.

취학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미취학 아동에 비해 취학 아동의 ‘이해’ 능력 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K-WPPSI 검사를 실시한 시점이 겨울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연구대상 중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초등학교 경험이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차이가 미취학 아동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이해력 점수를 보이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즉, 앞서도 언급했듯이 각종 교육 또는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경우 ‘빠진곳 찾기’ 능력에 비해 ‘이해’ 능력의 발달 수준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취학 여부에 따른 ‘이해’ 능력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만3~7세의 연구대상을 취학 여부에 따라 단순히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지능 검사 점수를 비교했고, 이 과정에서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차이로 인해 취학 여부에 따른 지능 검사 점수의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입소기간에 따라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단순히 입소기간으로 한정해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들어 시설에 입소하는 어린 아동의 배경이 무척 다양해지고 있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고아 또는 기아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와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이 있으며, 경제적인 빈곤을 이유로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과 가정의 경제적 사정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부부 문제로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이 있다. 즉, 시설 입소 이전 경험의 내용이 아동마다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시설보호 아동의 다양한 입소 배경과 과정을 고려한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보호 아동은 인지능력 중 ‘이해’ 능력의 발달 수준에 따라 행동문제에 차이를 보여서, ‘이해’ 능력이 낮을수록 불안이나 위축과 같은 내

면적인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해' 소검사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시설보호 아동은 사회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문제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사회적 판단력과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자기의 과거 경험을 평가하고 종합하여 실제 상황에 응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윤여홍, 2000)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불안과 위축의 행동을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지능력이 낮은 유아가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황혜신·황혜정(200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 결핍은 높은 언어 능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McCabe, Clark, & Barnett, 1999)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Dietz와 동료들(1997)은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인지적 기능의 일부인 언어 능력 및 수행 능력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해' 능력의 낮은 발달 수준이 불안 및 위축의 내면적인 행동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이상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언어적 결핍이 외면적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nderson et al., 1989; McGee, Williams, & Silva, 1984), Quay(1987)가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사용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언어성 지능 점수에서의 차이가 이들의 높은 비행이나 공격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 아동이 보이는 낮은 수준의 '이해' 능력이 외면적인 행동문제가 아닌 내면적인 행동문제의 발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자신의 문제 또는 불만을 외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나이가 어릴 뿐더러 사회적 지원망이 극히 부족한 시설보호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아동의 문제 행동은 학교에서의 실패나 좌절 경험에 의한 대안 반응으로 교사나 동료와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점차로 학습되는 것(곽금주 외, 1996)이어서, 시설보호

아동 중 '이해' 능력 점수가 낮은 아동의 경우 원활하지 못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결과, 불안 및 위축과 같은 내면적인 문제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성 및 동작성 지능을 측정하는 K-WPPSI의 소검사 중 각각 1가지씩만 실시하였기 때문에, 시설보호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능력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리고 시설에서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사가 연구대상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즉, 보육사가 아동의 행동문제 정도를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관찰자가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를 관찰, 평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에 따라 이들을 집단화한 다음 집단별로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과 행동문제간의 관계의 방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유아기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을 평가하고자 시도했다는 점과 이들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 발생을 인지능력과 연관시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이 어린 시설보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설보호 아동이 학교 또는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순히 사회적 능력의 부족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들의 인지능력, 그 중에서도 '이해' 능력과 같은 언어성 지능 발달의 문제와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지능력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바(Hinshaw, 1992)에 의하면, 초기 학동기의 행동문제와 관련되는 인지적 준비도 결핍에 선행되는 변수 중 아동의 내적 변수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언어적 결핍이며, 이와 함께 환경적 변수로 가족해체와 같은 요인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를 통해 가족 해체와 같은 환경적 특성을 가진 시설보호 아동이 표준화 검사에서 취약한 '이해'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이 행동문제에 취약한 인지적 특성과 가족의 부재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교육 제도에서는 학교생활에의 원만한 적응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학교적응의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한다(성미영 외, 2001). 그런데 '이해' 검사 점수가 낮은 시설보호 아동이 높은 수준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초기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설보호 아동은 낮은 '이해' 능력으로 인해 위축과 불안 행동을 보이며, 이는 또 다시 이들의 인지 및 사회역량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선주(1999)의 연구에 의하면,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 중 위축행동과 불안행동은 초등학생의 인지 및 사회역량 지각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인지적 능력, 사회적 역량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할 때 자신 있게 행동하고 다른 아이들과 자발적으로 잘 어울리며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반면, 자신이 인지적으로 유능하지 못하고 주변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능숙하게 상호작용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이 예민하며 기분이 자주 바뀌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를 포함해서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 능력을 포함한 언어성 지능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언어 이해력은 적절한 교육방법과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Elshout-Mohr & Daalen-Kapteijns, 1987)는 점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바,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과 그 효과에 대한 검토가 후속연구로 제안된다.

■ 참고문헌

- 곽금주, 박혜원, 박광배, 김민경(1996). 부모와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지적 능력. *아동학회지*, 17(1), 77-86.
- 노봉련(1997). 시설아동의 학업부진의 원인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광배(2000). 지능검사의 통계적 이해.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워크샵 자료집(초급)*, 25-48, 서울: 한국아동검사연구회.
- 박영준(1996). 육아시설아동의 생활환경요인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1996).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서선주(1999).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3), 97-106.
- 성미영, 이순형, 이강이(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초기 학교적응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1), 53-64.
- 신소희(1984). 시설아동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고아원의 남녀 중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윤여홍(2000).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해석의 이론적 배경 및 실제.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워크샵 자료집(중급)*, 29-62. 서울: 한국아동검사연구회.
- 이순형, 이강이, 성미영(2001).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9(4), 79-89.
- 이종원(1988). 육아시설아동의 성격특성 분석을 통한 생활지도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나야(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능력 비교.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황혜신, 황혜정(2001). 유아의 인지능력이 문제행동

- 에 미치는 영향. *대안가정학회지*, 39(3), 25-34.
- 황혜정(2000). 아동의 지능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6-197.
- 표갑수(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 남출판사.
- Anderson, J., Williams, S., McGee, R., & Silva, P. A. (1989). Cognitive and social correlates of DSM-III disorders in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842-846.
- Bassuk, E. L. & Rosenberg, L. (1988). Why does family homelessness occur? A case-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8, 783-788.
- Cook, E. T., Greenberg, M. T., & Kusche, C. A. (1994).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al understanding,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2(2), 205-219.
- Dietz, K. R., Lavigne, J. V., Arend, R., & Rosenbaum, D. (1997). Relation between intelligence and psychopathology among preschool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1), 99-107.
- Egeland, B., Kalkoske, M., Gottesman, N., & Erickson, M. F. (1990). Preschool behavior problems: Stability and factors accounting for chang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 891-909.
- Elshout-Mohr, M. & Daalen-Kapteijs, M. M. van. (1987). Cognitive process in learning word meanings. In M. G. McKeown & M. E. Curtis (Eds.). *The nature of vocabulary acquisition* (pp. 53-71). Hillsdale, NJ: Erlbaum.
- Eron, L. D., Huesmann, I. H., Dubow, E., Romanoff, R., & Yarmel, P. W. (1987). Aggression and its correlates over 22 years. In N. H. Crowell, R. J. Blanchard, I. Evans, & C. R. O'Donnel (Eds.). *Childhood aggression and violence: Sources of influence, prevention and control*. N Y: Academic Press.
- Frank, D. A., Klass, P. E., Earls, F., & Eisenberg, L. (1996).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orphanages: One view from pediatrics and child psychiatry. *Pediatrics*, 97(4), 569-579.
- Hinshaw, S. P. (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under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t: Causal relationships and underlying mechanisms. *Psychological Bulletin*, 11, 127-155.
- McCabe, K. M., Clark, R., & Barnett, D. (1999). Family protective factors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Journal of Clinical and Child Psychology*, 28(2), 137-150.
- McGee, R., Williams, S., & Silva, P. A. (1984).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 hyperactive, and aggressive-hyperactive boy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3, 270-279.
- Molnar, J. M., Rath, W. R., & Klein, T. P. (1990). Constantly compromised: The impact of homelessness on children. *Journal of Social Issues*, 46(4), 109-124.
- Morison, S. J. & Ellwood, A. (2000). Resiliency in the aftermath of deprivation: A second look at the development of Romanian orphanag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46(4), 717-743.
- Quay, H. C. (1987).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 Y.: Wiley.
- Ramey, C. T. & Campbell, F. A. (1991). Pover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academic competence: The Abecedarian experiment. In A. 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p.190-221).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